

# 내 인생의 가치 내가 만든다

##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 ② 인생을 경영하라
-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은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불교가 '나의 가치'를 찾는 지도라면 경제는 그 지도를 활용한 '나의 생활'이다. 불교와 경제는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차이이다.

그러나 불교와 경제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 속에 담긴 경제관과 경제논리를 지나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와 경제의 출발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다.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에 주체적인 '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인생경영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경영법이다.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 # '나'를 경영하는 지혜

대학시절 같은 과 단짝이었던 염석준(서울시 한남동·38)씨와 조일국(서울시 신당동·37)씨. 12년전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사업에 뛰어 들었다. 염씨는 직원 8명인 공작기계 부품회사를 인수했고, 조씨는 10여명의 종업원을 둔 전자제품판매업체를 차렸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인간경영'을 중시했던 두 사람의 운영이 같던 것은 의외의 기이했다. 염씨는 고비를 넘기고 20여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성장한 반면, 조씨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나'를 경영하는 기술에 있었다. 공동의 기업 운영을 꿈꿨던 염씨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누어 주며 사내 복지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힘썼다. 한편으로 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라.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은 "보시와 나눔을 통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복을 얻지 못할 뿐"이라며 "불교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경영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CEO는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주어졌고, 그 인생을 경영하는 모두가 CEO이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가지 있게 경영하는 엘리트니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바른 안목과 판단으로 살아간다.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추구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당히 주체로서



## 불교·경제 영역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안돼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삶 가치 실현 못해 "보시·나눔 통한 행복 추구 생활속에 존재" 뚜렷한 목표, 바른 안목 지니면 모두가 CEO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CEO가 될 수 있는 반면,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삶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은 "보시와 나눔을 통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복을 얻지 못할 뿐"이라며 "불교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 # 경영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CEO는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주어졌고, 그 인생을 경영하는 모두가 CEO이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가지 있게 경영하는 엘리트니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바른 안목과 판단으로 살아간다.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추구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당히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부처님이 제시한 인생경영의 기본원칙은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쓰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제시했다.

행복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 카르마경영으로 대변되는 그의 성공철학은 부처님이 제시한 인생경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분명한 목표와 책임을 이룬다. 카르마경영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인과응보와 카르마, 육바라밀, 자리아타 등과 같은 불교적 가르침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두 힘이 작용한다. 운명과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좋은 걸 생각하면 운명이 바뀌고 이게 또 좋은 결과를 낳는다. 결과에 노심초사할 이유는 없다. 원인과 결과는 놀라울 만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박봉기 기자 bypark@buddhapia.com

## 분배의 경제학(2)

### 분배의 형평성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던진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수많은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

직설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요약컨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내놓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것을 내놓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법이어서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 또 그것을 받고서 어려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지도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씩 양보하자고 했다.

현 전권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은근히 가난하게 된 원인으로 잘 사는 사

## 인간의 욕심 존재하는 한 양극화 해소 어려워 가정의 해체가 가난을 더욱 절망스럽게 정부, 공정한 '경기' 제정 지켜지게 해야

람들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분배에 있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못사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도움을 줘야 할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같이 양보하자고 하지만 보시해야 할 사람들을 원망하는 듯 한 말을 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기원을 가까이는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에게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현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 작업과 대기업 쟁탈전 정책은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과연 지금 가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친일파 때문이고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 때문인가. 저 임금과 실업의 원인이 제3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친일파 때문인가.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 소유의 양극화라는 문제는 영원히 존재한다. 욕심은 경쟁을 필연적으로 잉태하기 때문이다. 정도에 따른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져는 경우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자본가가 착취해서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식의 시각은 곤란하고 또 틀리다.

절대 빈곤층의 25% 정도가 빈곤하게 된 원인으로 사업 실패를 들고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구조적인 잘못으로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 100% 자신의 잘못이거나 100% 구조적인 잘못이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가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경기의 틀을 제공하고 또 그 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그 누구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경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면 문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가정의 해체, 더 근본적으로는 대가족 제도의 해체가 가난을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청운(靑雲) 아모레**



평온함을 느끼는 후로럴 우디(Woody)의 향기를 내는 선향 청운(靑雲)아모레. 영수백선으로 선택된 일본 도자기형 시오타니마찌 소우전지와의 깨끗한 용수로 빛이 만들어집니다. 천연 목단, 생약, 천연 식물성, 향산화작용이 있는 비타민도를 특별히 첨가했으며, 연소 후는 향기가 온화하게 퍼져 없어집니다. 출시기념으로 청운아모레 50pcs 1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가격 30,000원

## 아미타 삼존도 출시

서방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영접받은 아미타불

## 금세기 최고의 불화로 평가!

500점 한정 99.9%순금제작  
사찰에 한정 스님께서도 소장가치충분



아미타불은 무량수불(無量受拂),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서방극락정토의 교주로 인간이 수명을 다하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극락세계로 인도해 가는 분이다. 상배의 사람은 직접 아미타불의 화불과 성종의 내영을 받으며, 하배의 사람은 꿈과 같이 내영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보리심을 발하고 무량수불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여러가지 선근공덕을 쌓아 저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들을 말한다. 중배자란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자하는 사람이 출가하여 선근공덕을 무지못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일심으로 무량수불을 생각하며 더러는 착한 일도 하고 재계도 지키며,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사문에 공양하며, 꽃과 향을 사주며 이 공덕을 회향하여 저 국토에 나기를 발원하는 이를 말한다. 하배자란 중생들 가



아미타 내영도, 105 x 75cm

운데서 여러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한결같은 정성으로 열반만이라도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이를 말한다.

아미타삼존도는 금세기 최고의 불화로 평가 받고 있으며 大韓民國佛敎 美術大 展 大賞, 傳承工藝大 展(불화 대통령상) 大韓佛敎曹溪宗(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佛敎專門作家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완성시킨 아미타삼존도는 100%천연코튼 특수제작한 판화용지에 99.9%순금을 녹여 판화 인쇄와 순금처리 부분의 변색을 막기 위해 베르린화시 처리하고 최고급공단표구로 천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500점한정불화로 이제는 똑같이 만들기 어려운 세기의 작품이다. 출가하여 보리심과 무량수불을 일심으로 생각하고 선근공덕을 쌓는 스님과 불자에게는 뜻있는 귀중한 불화로 깨끗한 마음과 착한정성으로 전생에 지은 무명업과 업장을 녹이고 오는생에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받을 수 있는 불자로부터 보시 받는 것이 불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급대행은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정중히 모셔드립니다. 순금으로 제작하지 않고 일반 유행인생인 유사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시고 품질보증서내에 500점 한정이므로 번호와 소장자 란이 있고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한 불자님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란도 있습니다. 가격1,350,000원 문의(02)735-6923

## 수월관음도 출시

불자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만사형통의 영험!

##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높이 88cm, 폭 58cm

과 꿈들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화시 사용된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로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몰려지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들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 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02)735-6923  
농협 053-12-102911 김남룡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